

고흥, 추석 연휴 대비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태세 강화

군민이 안전한 명절... 재난 상황 대비 즉각 대응 준비 마쳐



고흥군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재난 발생에 대비해 현장 응급의료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 증가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비상 출동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환자 분류와 응급처치, 이송 지원 등 현장 응급의료 대응을 담당한다. 재난으로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나 소방 등 유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흥군 보건소는 재난 대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2개 팀 14명에서 20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재난 발생 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인력 10명도 추가로 편성했다. 또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보성군, 수확철 앞두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보성군은 농기계 안전사고와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 보성읍 동암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4일까지 관내 12개 읍면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확철 농기계 사용과 도로 주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농업인 200여 명이다.

특히 군은 교육과 연계해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200대에 저속 차량 표시등을 부착한다. 이를 통해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가 농기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도로 주행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이 자주 사용하는 예초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자가 정비요령을 교육하고, 소모 부품 교체 등 실습 중심의 교육도 병행한다.

해남군 “라이브 콘서트로 청렴문화 확산”

해남군은 지난 10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직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 관계 법령에 대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한반도의 시작 땅 끝 해남에서부터 청렴 바람을 일으키는 의미로 해남군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경찰·세무·교도·소방·우정 분야의 해남군 내 유관기관 공직자들도 함께 참여하며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청렴을 주제로 한 미술 공연과 스탠드업 코미디를 통해 참가자들이 라이브콘서트를 즐기듯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내용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한편 해남군은 건전명절 캠페인, 청렴 주의보, 청렴 서한문, 청렴 골든벨,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청렴정책으로 더 투명하고 깨끗한 해남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진도군, ‘지역상품권 드림사업’ 인기… 예산 전액 소진

진도군이 지난 5월부터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한 스마트폰 관광 인증여행(모바일 스탬프투어) 연계 ‘지역상품권 드림사업’이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예산을 전액 소진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역상품권 드림사업’은 진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주요 관광지와의 체험 시설 등을 방문해 스마트폰 관광 인증도장(모바일 스탬프)을 획득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진도아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관광객 장려(인센티브) 사업이다. 올해는 주요 관광지와 서해랑길, 관광두레 체험장, 삼일오산 경로(코스) 등 약 50개의 인증 장소를 운영해, 관광객들이 진도 곳곳을 둘러보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면서 약 2,000명이 참여하며,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전액 소진됐다.

장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9천만원 부과

장흥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23억 4천만원, 주택 2기분 1억 5천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0.7% 증가했으며, 공시가격 변동과 1세대 1주택 세 부담 완화제도 등 다양한 과세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위택스·인터넷지리·가상계좌·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완도-‘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10월 9일 시작

섬 연계 프로그램 및 전복 깜짝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포스터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섬 관광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가을에 물들었섬, 완도에 반했섬!’을 주제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을 개최한다.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은 완도의 바다 자원, 먹거리, 로컬·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가을철 대표 행사로 청산도 등 섬 연계 프로그램은 물론 바다와 섬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섬 연계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청산도 은하수 만나기, 섬 속의 낙원 보길 세연정에서 머무르기, 생일도의 가을 선물 등을 준비했다.

해변공원 일원에서는 ‘개막 축하쇼’를 시작으로 ‘낭만 콘서트’, ‘가수왕을 찾아라!’, ‘매직쇼’, 완도의 바다를 보고 만지고 향으로 느끼는 ‘오션 공방’, ‘아일랜드 퀴즈 투어’,

해변 독서 문화 축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완도 대표 특산물인 전복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복의 맛있는 변신’을 콘셉트로 무료 시식, 깜짝 경매,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며, 푸드 존에서는 전복 해초 비빔밥, 전복 버터구이 전복 김밥 등 다양한 전복 음식을 선보인다.

군은 축제를 통해 가을철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체류형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과 완도문화관광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민 기획단은 지역 특색을 살린 참신한 아이디어로 축제를 꾸밀 계획이다.

